

<박사학위논문 소개>

고등학교 경쟁률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환경에 대한 공간적 분석*

A Study on Educational Environment Affecting High School Competition Rate

저 자: 정 재 훈 (Jung, Jae-hun)**

지도교수: 김 경 민 (Kim, Kyung-Min)***

학교 선택제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진학하고자 하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학교 선택이라는 방식으로 학교 간 경쟁을 통해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시행되었다. 하지만, 교육환경 여건이 변화하면서 보완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학교 선택 기준으로 학교 교육의 질은 물론이고 교육환경 등을 고려한다. 교육환경은 거주지 이동 결정과정에서 거주지 선택의 중요기준이 되며, 이러한 거주지 이동으로 도시 공간은 부동산, 금융 자산, 그리고 주거형태에 따라 클러스터 되어 공간적 응집현상이 체계적으로 구조화된다. 이러한 공간적 격차는 또 다른 차이의 인과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학령인구의 감소는 모든 학교의 규모를 축소시킬 것이며, 특히 선호도 낮은 학교들을 소외시키면서 학교 간 학생·학급수의 격차를 야기하며 교육의 질을 하락시킬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학생·학급 수가 적은 학교의 경우 대학 입시 실적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형성될 것이고 부정적 평판으로 인해 낮은 선호도의 학교는 계속 소외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를 선택할 때 주요 선택 기준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학교 선택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것은 차후 정책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서울시 교육감선발 후기고등학교 배정결과에 대한 전수자료를 통해서 기존 선행연구들이 잘 다루지 않았던 학교주변의 교육환경을 학교선택기준의 관점에서 실증분석하였다. 고교선택제하에서 서울시 교육감선발 후기고등학교에 지원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학교선택기준과 도시에서의 교육환경이 고등학교 경쟁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서울시 교육

감선발 후기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거주지 학교군 및 타 학교군 소재 고등학교를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색하기 위하여 교육환경을 학교내적요인과 학교외적요인으로 구분하여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학교외적요인이 경쟁률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춰서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고교선택제 시행 전후의 5개년도(2008, 2009, 2010, 2014, 2018학년) 전수자료인 서울시 배정자료와 학교알리미 자료, 국가공간정보자료를 병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통학거리 및 교육환경 요소들은 지역별로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어, 학교군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함을 생각해볼 수 있었다. 교육환경의 공간적 격차는 지역 격차뿐 아니라 비선호 학교의 규모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교육의 질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원거리 통학의 불리함에도 학생과 학부모들이 타 학교군의 고등학교를 선택하고자 하는 것은 학교의 문제가 아닌 지역 격차의 문제이며,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다. 앞으로 학령인구 수 자체가 감소하여 모든 학교의 규모가 축소될 것이 명확하기에 소외되는 선호도 낮은 학교들의 학생·학급수의 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 문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서울시 교육청 및 서울시와 자치구들은 학교 간 격차뿐만 아니라, 학교군 및 자치구 간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주제어 : 교육환경, 고교 선택제, 고교 경쟁률

Keyword : Educational Environment, School Choice Program, High School Competition Rate

* 본 논문은 필자의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인 정재훈(2020), '고등학교 경쟁률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환경에 대한 공간적 분석'을 요약한 것임.

** 서울대학교 도시계획학 박사, gaza8@naver.com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kkim2@snu.ac.kr